

새해에 거는 소망

朴 瑩 鶴
(圓光大 新聞放送學科)

모두 좀 진실했으면……

四分五裂됐던 선거 民心이 한 길로 歸一해야 할 팔팔년을 맞는다. 복은 것은 가고 새 것만 오게 하는 소망의 한 해여야 한다. 거칠었던 제 5공화국의 크고 작은 시비들을 말끔히 씻어 버리고 팔팔 뛰는 '88년이 되게 하자. 이 한 해 동안 만든……. 얼마나 많은 진실들이 거짓으로 위장됐던 지난 세월이었던가!

우리 사회 주변을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임시 방편이 꽤나 성행한다. 메시지를 속이려 드는, 술수부터 부리려는 사람들이나 집단이 대다수인 듯하다. 모두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빛 좋은 개살구' 정도를 벗어나, 탄탄하고 실속 있다는 선전치고 속 빈 강정 아닌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친한 친구 사이에도 '솔직히 말하자면'이라는 前提를 내세우고 본론을 얘기하게 되며, 얘기가 끝나면 '이제 내 말 믿겠지'하고 다짐을 하기도 한다. 왜 이렇까? 우리 사회가……. 왜 이처럼 삭막해졌을까?

믿지 못하는 풍조는 대인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다. 국민과 정부 관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깊은 不信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만 느낌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民主化를 이 시대에 기필코 달성해야 할 지상 과제로

상정하고, 정치적 이해 집단들끼리 甲論乙駁을 일삼아 왔었다.

그러나 타협의 실마리를 겨우 찾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새우 등 터지는 고래 싸움격으로, 그나마 현실 참여에 민감한 대학생 층들의 희생만 속출하는 상황을 견디어야 했던가? 시대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연전에도 이른바 '建大事態'로 명명되는 1천 몇 십 명의 '용공분자들'의 속출과 시위 학생들이 몽청몽청 연행되는 상황을 보았다. 이 시대의 그 무엇이 젊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강의실을 팽개치게 했으며, 공부 열심히 하면 보장받는 직장에서 평생을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재능의 소유자들인 한국 유수의 선택받은 대학생들이 강의실을 팽개치게 했던가? 그 무엇이 그런 약속된 장래를 마다하고 거리의 아스팔트 위에 나뒹굴며 결국 용공분자로 변신하게 했던가?

특히 서울大 학생 朴鍾哲君의 고문 치사라는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소름이 끼치는 끔찍함을 금할 수 없었다. '탕'하고 책상을 쳤더니 '억'하고 쓰러진 박종철……. 그 朴君 역시 한 때는 우리 사회의 현실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이른바 이 시대의 상징적 징표로 기록될 시위 학생의 범주에 해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그 방면에서 손을 씻고 겨울 방학 동안 착실히 졸업설계를 하는 평범한 학생으로 바뀌었고,

경찰에 끌려가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어울렸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끌려간 뒤 싸늘한 시체로 부모 품에 돌아올 줄을 감히 누가 상상을 했으랴.

‘임의동행’의 법률적 의미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다만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우리는 경찰의 자칫 실수에 따라서는 누구라도 생과 死를 너무나 손쉽게 판가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증해 준 점에 분노했었다.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

가끔 인간의 삶에 관해 얘기할 때,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먼저 들먹인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늘이 내린 것으로 그 누구로부터도 침해받거나 또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을 비인간 되게 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연히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뜻으로 지어진 인간의 존엄성이 어떤 의미로든 보호받지 못하거나 유보되는 상황을 놓고 민주 사회 운운하는 것은 웃음거리이다.

朴鍾哲君의 고문 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천주교의 金壽煥 추기경은 “민주 국가, 법치 국가, 정의 사회라는 대한민국 안에서 백주에 한 젊은이가 경찰에 연행된 지 수시간 후 시체로 변했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한없이 아파하면서... 과거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라고 추도 미사 강론을 폈었다.

金추기경의 준엄한 질타의 목메인 말처럼, 정말 박종철군의 죽음은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만 끝날 수 있겠는가? 관계 당국의 말처럼 ‘탕’하고 채상을 치자 ‘억’하고 쓰러져 죽는, 마치 한 젊은이의 죽음이 중국 무술 영화 ‘쿵후’의 한 장면처럼 설명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고

문 치사)가 정말 실수라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죽지 않고 살아 가고 있는 셈이 된다.

박종철군의 죽음을 놓고 그의 살아 생전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살아 있음을 오욕이요 부끄러움으로 생각한다는 吊辭의 글귀를 우리는 읽은 바 있다.

생기 발랄하고 기운차게 앞으로 앞으로 준마처럼 내달기에도 바쁜 청춘을,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생을 갈구하는, 기성 세대들처럼 찌들지 않은 천진한 그들이 어찌하여 하늘 보기가 부끄럽다고 朴君 죽음 앞에 통한의 회개를 했는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기에 하늘 푸른 민주 사회 대한민국 땅에 두발 굳건히 딛고 지금껏 살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朴君의 죽음 앞에서 이 땅의 朴君 또래와 젊은 대학생들이 가슴 저미는 슬픔을 안고 이 시대에 살아 있음을 부끄러워 해야 했는가?

아버지는 할 말이 없데이

당차고 숫기 넘쳐야 할 젊은 대학생들이 그같은 패배주의에 빠져들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朴君의 죽음을 놓고 당시 의사당에서는 한 選良이 목소리를 높구었었다.

“朴鍾哲君의 시신을 태운 그 재는 보도에 의하면, 그 부모가 임진강 물에다가, 아버지가 ‘종철아 잘 가 그레이! 아버지는 할 말이 없데이’ 하고 물에 뿌린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임진강은 뽕뽕 얼어 붙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철이의 그 육신의 흔적은 그 얼음 바닥에 부딪쳐서 강 바닥에 눈보라가 되어가지고, 서해에 흘러가지도 못하고 구만리 창공을 날으면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의사당의 상공을 맴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고독한 영혼을 우리가 거두어 주기 위해서는 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왜 그 아버지가 ‘아버지는 할 말이 없데이’하고 무형의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말 문을 뜨게 해야 합니다”(제132회 임시국회 본회의 속기록, 『月刊朝鮮』 3월호, 1987, p.670).

이렇게 왜 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는가? 장황하게 느껴질지 모르는 인용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의사당에서 야당의 한 의원이 쏟은 대정부 질문 내용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아픔과 말할 수 있는 자유의 한계 상황을 암묵적으로 시사해 주었다.

스물 한 살 청년의 시퍼런 젊은 육신을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한 시체로 맞을 때, 그 아버지의恨 맺힘은 구천에 사무치고도 모자랄 것이다. 그는 凡俗을 초월한 達人도 아니며 누렇게 도금된 부처님도 아닌 바에야 자식의 죽음을 놓고 왜 말 한마디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할 말이 없데이’ 하고 왜 스스로 입 막음을 하는가?

금방 죽여 고기로 팔려갈 황소라도 억지로 물을 먹여 잡는 도살꾼에게는 그 죄를 물어 철장 맛을 보게 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法이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라!

정말 행복이 자유로운 곳인가

大明天地 밝디 밝은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 하늘 밑에서 그것도 청춘이 萬里 같은 한국 유수의 명문 대학의 한 대학생이 억지 물 먹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시대의 한 상황을 두고, 누가 감히 유행가 가락처럼 ‘하늘엔 조각 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는...’ 풍광의 유유자적함을 마음놓고 제대로 만끽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자유로운 곳’ 그곳이 바로 민주 대한민국, 이 땅이라고 노래 가락은 이어지는데... 그리하여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좋은 나라인 ‘아!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인데도 그렇게 구가하는 우리들 노래 가락의 그 어느 구석에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암울함이 깃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인의 삶의 조건은 지고 새는 날이면 날마다 피어나는 최류탄 안개 속에 콧물 재채기로 괴로워해야 하는가?

“똑똑한 자식을 낳아서 안 된다고 많은 학부모들은 절망감에 싸여 있음”을 당시 야당의 한 선량은 계속 대정부 질문에서 밝혔었다.

똑똑한 자식 낳아 고대광실 높은 벼슬 누리며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자식 둔 어버이들의 평범한 바람이겠거늘 그 무엇이 그런 어버이들의 바람을 매몰차게도 “잘난 자식 원치 않는다”고 싸득 잘라 말하게 하는가?

이제 우리 모두 진실로만 말하고 묻기로 하자! ‘눈가리고 아웅’ 하면 오히려 고양이 가 웃을 것이다. 한 인간의 억울한 죽음을 겪으면서 진실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이 그의 시신 앞에서 다시금 그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속죄해야 할 것이다. 그가 그렇게 죽어가도록 몰랐던 우리들 모두의 방조죄는 크고도 무거운 것이기 때문이다.

어지러웠던 '87년이 저물고 이제 소망의 '88년 새해를 맞았다. 아픈 상처를, 대학이 겪었던 지나간 통환을 새해 벽두에 다시 되새김질 하는 것부터 우리 어른들은 부끄러워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자칫 잊고 지나감으로써 또 다른 불행이 우리 주변을 망령처럼 배회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류탄에 지고 새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88년 새해 벽두에 우리는 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강단에서, 배우는 사람은 강의실 책상에서, 정치는 국회에서, 경찰은 질서 유지만 전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자!

배운 것 없고 덜 입었어도 인격의 당당함을 제값대로 평가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88년 한 해를 살아가자!

‘딱’ 쳤더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말의 유희가 사라지고 진실의 입만이 말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어제의 하늘과 특별히 다를 바 없는 오늘 아침의 하늘을 두고 우리는 애써 새해 새날이라며 소망을 물어 두는 所以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억울한 죽음과 최류탄 없는 새해를 살고 싶다. *